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

# 요족

Yáozú

瑶族

편자 장금수  
역자 립금산

료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자



© 林锦山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瑶族：朝鲜文 / 张锦秀编；林锦山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2014. 5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ISBN 978-7-5497-0791-1

I. ①瑶… II. ①张… ②林… III. ①瑶族—民族  
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5.1-4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4) 第 114582 号

## 瑶族

### YAOZU

---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110003

印刷者：沈阳海世达印务有限公司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 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 年 5 月第 1 版

印刷时间：2014 年 5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

标准书号：ISBN 978-7-5497-0791-1

定 价：18.00 元

法律顾问：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www.lnmzchs.com

淘宝网店：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024-23284336

邮购电话：024-23284335

联系电话：024-23284340

#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가나다 순)

곽우과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회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족)

왕해연(창족)

심고전문가(가나다 순)

김여빈(회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동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력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짱반나 따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짱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툽판 포도곶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동등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 목 록

---

## 제1장 산간지대민족——요족개황

인류의 기원설——미뤄튀 /9

요족이 산에 거쳐하게 된 유래 /13

## 제2장 요족의 생활습속

바이쿠요의 래력 /17

동향 요족남성들이 검을 차는 유래 /21

흙통에 관한 이야기 /29

담혼동의 이야기 /33

## 제3장 요족의 명절습속

판왕절의 래력 /41

다누절의 전설 /43

6월 초엿새 반년설을 쇠는 유래 /45

단오절에 칩냉쿨을 걸어놓는 래력 /51

## 제4장 요족의 신앙과 금기 이야기

다바이가 우신과 싸우다 /53

요족이 우퇴를 꺼리는 이야기 /61

## 제5장 요족의 문화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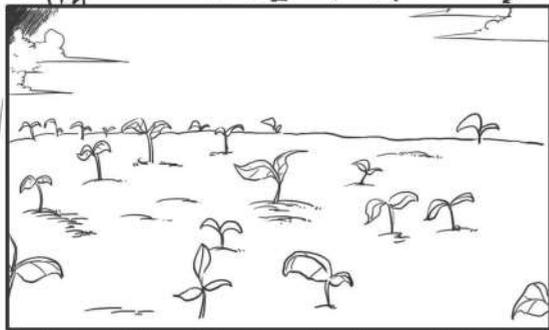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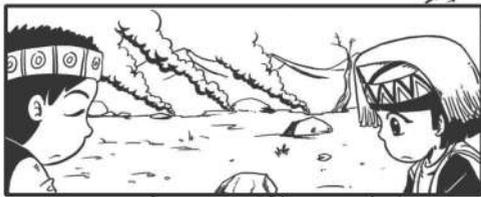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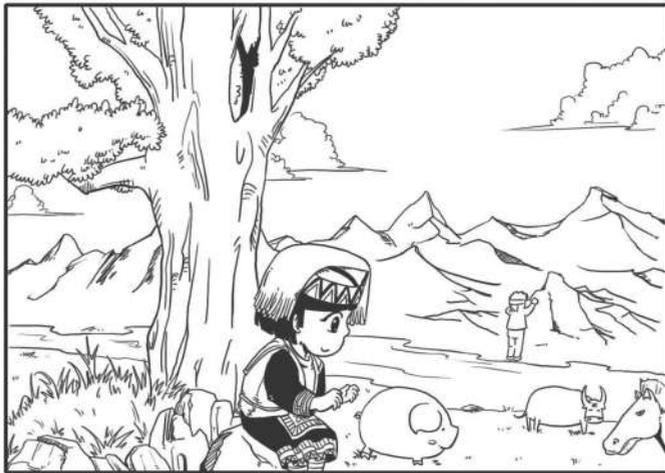
황니고의 유래 /63

장고의 래력 /67

## 제6장 요족의 민족영웅이야기

대등협에 관한 전설 /75

## 참고문헌



## 제1장 산간지대민족——요족개황

주로 고대 장사(长沙) 무릉만(武陵蛮, “무릉만”은 한나라때 지금의 호남 서부와 호북 서남부 등지에 분포되어있던 민족의 총칭)의 일부에서 발전해온 요족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갖고있다. 노래와 춤을 즐기고 근로용감한 요족은 “멘(勉)” (반요—盤瑶), “부누(布努)” (배루요—背篓瑶), “노거로(瑙格劳)” (백고요—白裤瑶), “라자(拉珈)” (차산요—茶山瑶), “조민(藻敏)” (팔패요—八排瑶) 등 부동한 자칭이 있다. 2000년 전국인구보편조사에 따르면 요족은 263만여명으로서 주로 광서, 호남, 운남, 광둥, 강서, 귀주 등 성과 지구의 산간지대에 분포되어있으며 우리 나라 남방지구의 비교적 전형적인 산간지대민족(山地民族)이다. 요족은 본 민족 언어는 있으나 문자가 없으며 한문을 통용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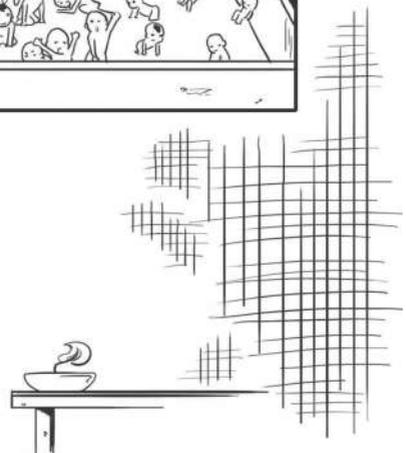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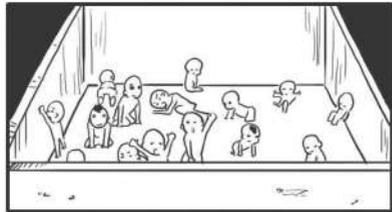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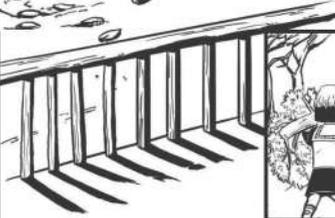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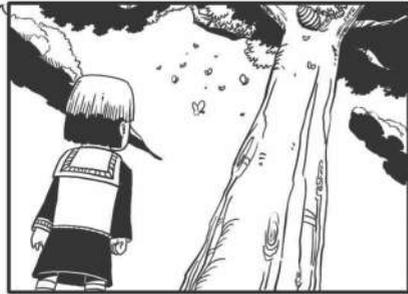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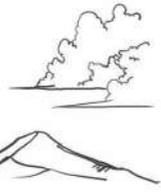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 많은 민족은 자신들의 전설이야기를 갖고있다. 도대체가 누가 천지와 인류를 만들었고 무엇으로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을까? 요족지구에서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 인류의 기원설——미뤄튀

몇만년전 미뤄튀(密洛陀)는 스승의 비모자(雨帽)로 하늘을 만들고 스승의 두손과 두발을 4개의 기둥으로 삼아 하늘의 네귀를 고였으며 스승의 몸체를 큰 기둥으로 삼아 하늘 한가운데를 떠받쳐 비로소 천지가 만들어졌다. 이어서 그는 또 큰 강과 작은 강을 만들고 화초와 수목을 만들었으며 물고기, 새우와 소, 말, 돼지, 닭, 오리를 만들었다...

미뤄튀는 고은(诰恩)에게 산을 만들라고 하였다. 실참이 되어 고은은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려다가 그만 화재를 내고말았다. 큰 불은 모든 화초와 나무를 태워버려 지면은 민둥민둥하게 변해버렸다. 이 일을 알게 된 미뤄튀는 몹시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야우(牙佑)를 시켜 은전을 가지고 아주 먼곳에 가서 나무씨를 사오게 하여 산기슭에 뿌렸다.

한동안 지나니 씨앗은 싹을 틔워 작은 나무가 되었고 작은 나무는 큰 나무로 자라 집을 지을수 있는 재목이 되었다. 미뤄튀는 야우, 고은과 상의하여 나무를 찍어 적당한 곳으로 옮겨가 집을 지을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찍어온 나무가 죽히 집을 지을수 있을만큼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무를 어떻게 자르고 쪼개야 할지 몰랐다. 여러번 상의해보았으나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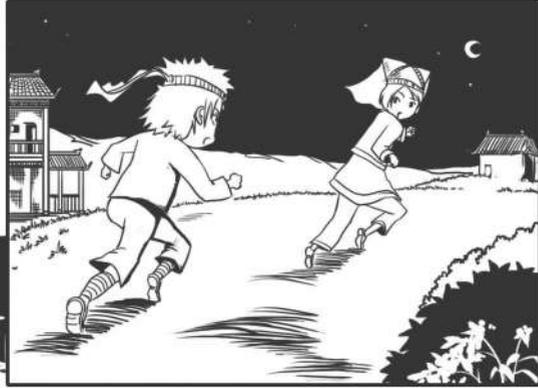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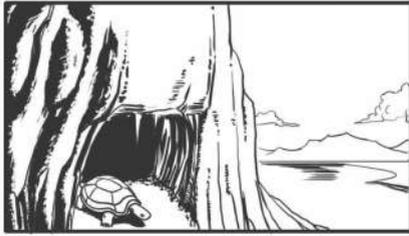


어느날 야우가 산비탈을 오르다가 큰 메뚜기 한마리가 참억새잎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뒤다리에 가시가 돋친것이 매우 날카로와보였다. 그는 메뚜기를 잡으려다가 결국은 손이 참억새잎에 베여 피가 흘렀다. 그가 상처를 감싸는 순간 “참억새잎의 톱니모양과 메뚜기다리의 가시모양을 본따서 쇠로 톱을 만든다면 나무를 마음대로 자를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톱을 만들어 나무를 켜고 자르고 하여 인차 집을 지을수 있었다.

미뤄뒀는 집을 지었으니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대신 물을 담은 항아리가 만들어졌다. 그는 또 쌀밥으로 사람을 만들어보았는데 그만 술이 되어버렸다. 그는 다시 참억새잎으로 사람을 만들어보았지만 결국은 메뚜기가 되어버렸고 호박, 고구마로 사람을 만드니 원숭이가 되어버렸다.

여러차례 실패를 거친후 미뤄뒀는 사람을 만들려면 좋은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선후로 메돼지, 곰, 딱따구리, 긴꼬리오리, 까마귀 등을 파견하여 좋은 곳을 찾게 했으나 모두 찾지 못했다. 마지막에는 매를 파견하여 찾게 했는데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내었다. 이곳은 기후가 따뜻하여 봄날갈고 두견화가 온산에 활짝 피었다. 그가 수림속에 들어가 한 나무아래 멈춰서자 나무우에 있는 벌집이 눈에 띄었다. 꿀벌들이 부지런히 드나들며 화분을 채집하고 꿀을 빚는 근로한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그는 그 나무를 찍어 벌집과 함께 메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낮에 세번, 밤에 세번 제련한후 꿀벌들을 상자안에 넣어두었다. 아홉달이 지나자 상자안에서 울고불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재빨리 상자를 열어보니 꿀벌 하나하나가 모두 작은 사람으로 변해있었다. 미뤄뒀는 너무도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됐어! 됐어! 성공했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징징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아 미뤄뒀는 몹시 안달아났다. 오래도록 생각한 끝에 그는 먼저 물로 아이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천으로 잘 감싼 다음 자신의 젖을 먹였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자라났다. 그들이 자란후 각자 산채(山寨) 하나씩을 맡아 동네를 건설하고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이때로부터 마을마다 산채마다 밥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산골짜기마다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들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즐겁게 남경녀직(男耕女织)의 생활을 이어왔다.



전하는바에 의하면 요족은 원래 산에서 거처하지 않았고 요족산채의 주위에도 그렇게 많은 산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요족은 남방의 비교적 전형적인 산간지대민족으로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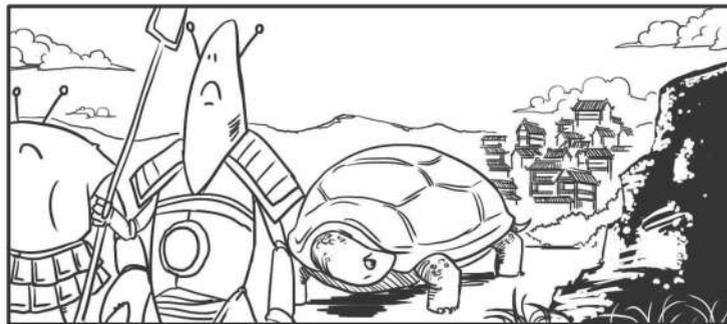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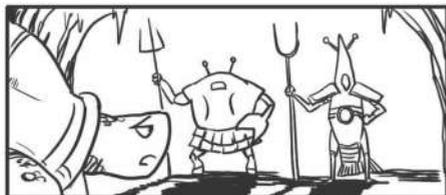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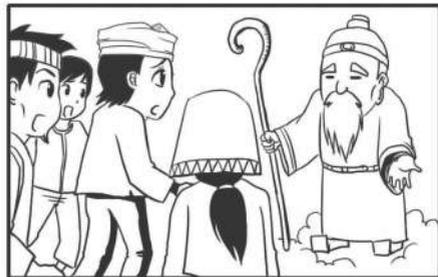
## 요족이 산에 거처하게 된 유래

옛날옛적에 지금의 광서좡족자치구 남단현경내에 작은 강이 있었다. 강변의 바위동굴에는 거부기요정이 살고있었다. 이 거부기요정은 룡궁에서 도망쳐나왔는데 항상 밤이면 영준한 젊은이로 변하여 요족의 각 산채를 빈둥거리며 부녀를 희롱하고 유린하였다. 그는 신통한 재간이 있는데 꼬리가 “산을 모는 채찍”(赶山鞭)과 같아 가볍게 한번만 휘둘러도 산을 통채로 몰아갈수 있었다. 하여 부근의 백성들은 큰 피해를 당하고있었다.

어느날 저녁, 거부기요정은 또 영준한 젊은이로 변해 요족산채에 기여들었다. 그가 산채어구에 이르자 한 처녀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노래소리는 피꼬리소리보다 더 듣기 좋았다. 거부기요정이 노래소리를 따라 가보니 처녀가 파초림가에 서있었는데 용모가 뛰어나고 몸매가 균형잡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거부기요정은 마음이 끌려 돼지 먹 따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다가갔다.

처녀는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준 노래인데 느닷없이 들려오는 이상한 노래소리에 화가 나서 집으로 달려갔다. 거부기요정은 급히 처녀를 뒤쫓아 그의 집안에까지 따라 들어왔다. 집안의 화로가에는 한쌍의 중년부부가 앉아있었다. 거부기요정은 처녀의 부모일거라 생각하고 다가가 말을 걸었다. “나는 당신의 딸이 마음에 드오. 당신 딸과 결혼하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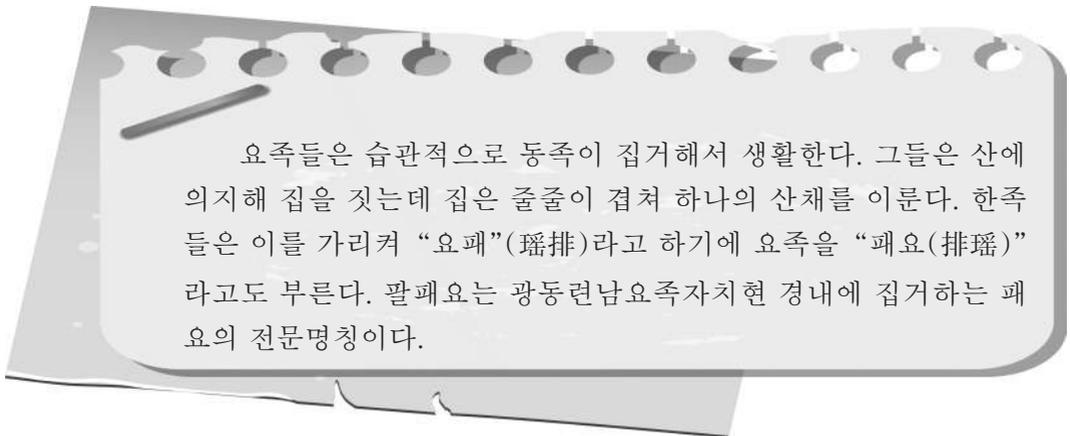
처녀의 부모는 그가 신수는 멀쩡한데 요족의례의를 모르는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처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딸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약을 하고 꽃우산(꽃우산을 주는것은 요족의 약혼 풍속임)까지 주었네.” 그러자 거부기요정은 자기 집에도 꽃우산이 있다고 말했다. 기가 막힌 처녀의 부모는 이놈은 요족의 사나이로 가장한 악당일거라는 의심이 더 커졌다. 어머니가 정색해서 빨리 사라지라고 했다. 그제야 거부기요정은 흉악한 물골을 드러내었다. 눈치빠른 아버지가 재빨리 소뿔나팔을 불었다. 요족산채의 사람들은 소뿔나팔소리를 듣자마자 화불을 들고 칼과 낫, 몽둥이를 지니고 신속히 달려왔다. 거부기요정은 정세가 불리해지자 황급히 산채를 빠져나가 도망치고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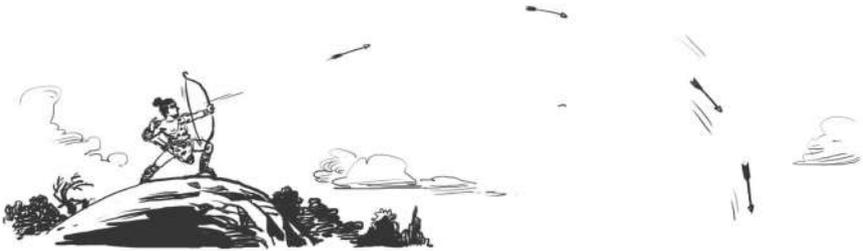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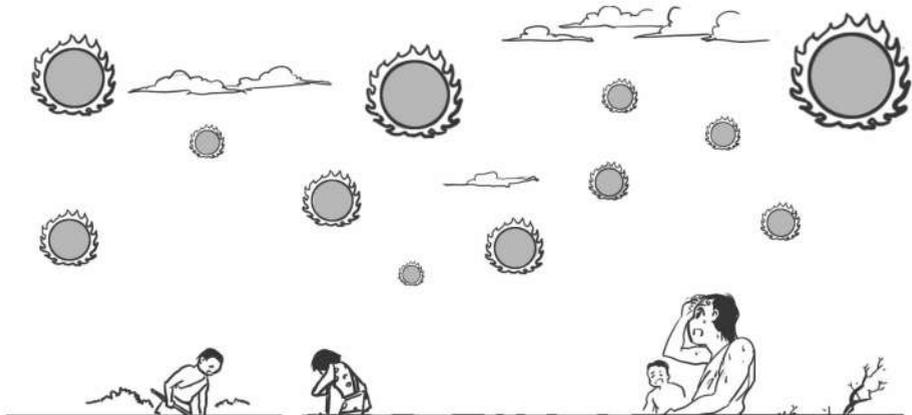
바위동굴로 돌아온 거부기요정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꼬리를 휘둘렀다. 크고 작은 산들을 몰아와서 요족산채를 짓눌러버릴 생각이였다. 그런데 그만 산을 몰아오는 소리가 야간순찰을 하던 토지신을 놀라게 했다. 토지신은 즉시 땅속에서 나와 요족산채에 이르러 거부기요정이 요족산채를 깔아뭉개려고 산을 몰아오고있다고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토지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토지신이 말했다. “거부기요정은 흉악하기는 해도 날이 밝는것을 제일 두려워하네. 날이 밝으면 숨어야 하니까. 그러니 빨리 집집의 수탑들을 잡아오고 불을 밝혀서 수탑들로 함께 화를 치게 하게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각기 집으로 달려가 수탑을 잡아왔다.

한편 거부기요정은 산을 몰아오다가 갑자기 수탑이 화를 치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밝는줄 알고 할수없이 이튿날 밤에 계속 산을 몰아오기로 하고 바위동굴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바로 이때 새우병사들과 계장수들이 룡왕의 뜻을 받들어 거부기요정을 붙잡아가려고 왔다. 거부기요정은 감히 반항을 하지 못하고 고분고분 룡궁으로 끌려갔다.

이때로부터 요족들이 사는 곳에는 산들이 많아졌다. 백성들은 요족산채주위의 높은 산과 험준한 령들은 바로 거부기요정이 몰아다놓은것이라고 말한다.



요족들은 습관적으로 동족이 집거해서 생활한다. 그들은 산에 의지해 집을 짓는데 집은 줄줄이 겹쳐 하나의 산채를 이룬다. 한족들은 이를 가리켜 “요패”(瑶排)라고 하기에 요족을 “패요(排瑶)”라고도 부른다. 팔패요는 광둥련남요족자치현 경내에 집거하는 패요의 전문명칭이다.



## 제2장 요족의 생활습속

요족은 풍속습관면에서 줄곧 본 민족의 전통특색을 유지하고있는데 특히는 남녀 옷차림에서 더욱 뚜렷하다. 요족부녀들은 자수에 능한바 그들의 옷깃, 소매, 바지의 단에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져있다. 그들은 머리를 가늘게 땡아서 머리우에 쪽을 짓고 그우를 5색 구슬로 감싼다. 옷깃의 목부위부터 가슴앞까지는 채색무늬를 수놓는다. 남성들은 머리를 길러서 쪽을 진후 붉은 천이나 검은 천의 머리수건으로 두른다. 옷깃이 없고 두섶이 겹치지 않으며 가운데 단추를 채우고 소매가 긴(无领对襟长袖) 옷을 입고 흰천으로 된 가방을 비스듬히 어깨에 메며 단이 너른 긴 바지를 입는다. 요족남녀들은 열대여섯살이 되면 꽃모자를 머리수건으로 바꿈으로써 이미 성인이 되었음을 표시한다.

광서와 귀주가 련접된 일대의 요산에는 3만여명 요족이 살고있는데 남성들은 일년 사시절 흰 머리수건을 두르고 검은 옷과 무릎을 넘는 흰 바지를 입기에 사람들은 “바이쿠요”(白裤瑶)라고 일컫는다. 그들은 왜 흰 머리수건을 두르고 검은 옷과 무릎을 넘는 흰 바지를 입는가?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 바이쿠요의 래력

전하는데 의하면 반고(盘古)가 천지를 개벽할 때 하늘에는 해가 12개, 달이 16개 있었다. 사람들은 빛에 쬐여 참을수가 없어 잇달아 요왕 겨우와(瑶王勾洼)를 찾아가 해와 달을 썩 떨구어줄것을 요청하였다. 겨우와는 명사수였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려 즉시 활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해와 달을 향해 28발을 쏘았다. 그러나 해와 달을 하나도 떨구지 못했다.

몹시 실망한 겨우와는 울적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안해 야니(亚妮)가 남편의 안색이 좋지 않은것을 보고 물었다. “당신 왜 그래요? 무엇때문에 수심에 찬 얼굴로 말 한마디 없으세요?” 겨우와가 말했다. “활쏘기련습을 몇십년 헛했소. 해와 달을 하나도 떨구지 못했으니 어떻게 고향사람들을 대하겠소?” 안해가 너무 조금 해하지 말라고 위안했다. 밤중에 겨우와가 꿈을 꾸었는데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대지 서쪽의 사일산(射日山)에 가야만 해와 달을 썩 떨굴수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겨우와는 기뻐서 꺄꺄 웃다가 꿈에서 깨어났다.